

# 누비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나비 모티브를 중심으로 -

신혜원 · 김정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석사 ·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 A Study on Clothing Design applying Quilt

- focused on a butterfly motif -

Hae-Won Shin · Jung-Hye Kim\*

Major in clothing design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design, Dongduk Womans University\*

(2000. 7. 24 투고)

### ABSTRACT

Modern clothing is approached in the level of art, and it becomes the means of expressing individuality in modern society uniform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In this modern society, modern men need the recovery of humanity and expectations of handcrafted skills for the succession of tradition culture. Prior to expressing individuality, we should examine our traditional culture and combine it with western culture. Quilt started to be used for practical purpose such as life items, but it is expanded to the fields of art. Used in dress and its ornaments design, quilt is often applied to the addition of aesthetic factors or cubic material feelings by transforming its warming effect.

Hereby, this study has a purpose to create high value added modern dress and its ornaments design by expressing the Modern clothing is approached in the level of art, and it becomes the means of expressing individuality 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quilt, and applying the color combination and the surface of butterfly wings to dress and its ornaments design.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concept of quilt started for practical purposes, but it is expanded to decoration in modern times, and it is confirmed that quilt can be variously applied to handcrafted modern design.
2. Quilt removes the plane character of textile and it riches the three-dimensional material of dress and its ornaments. Apply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expression of transparent wings were possible with 3 transparent layers of textile.
3. The splendid color of butterfly wings are expressed by coloring oganza and felt, and the various colors of felt showed rich color gradation.

4. The form and pattern of butterfly wings are applied as modeling form and line, and the transformation, repetition and expansion of unit forms determined the form of quilting lines. By designing the characteristics of back wings for the composition line of clothing, the form characteristics of a motif could be emphasized.

5. By using felt, oganza, Damdam yarn and ostritch feathers in expressing butterfly wings, the warm material of Linbun is felt, and the tip hair of wings are expressed by croche techniques using Damdam yarn.

Key Words : Quit(누비), The th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quilt(누비의 3차원적 질감), Handcrafted(수공예적), Quilting lines(누비 선), The form and pattern of butterfly wings(나비 날개의 재질감)

## I. 서론

본래 의복이란 신체보호, 사회유지, 노동, 운동, 휴식, 위생을 위한 용도적 기능과 장례식, 의식, 회합 등의 사회적 기능의 목적으로 다루어져 왔다.<sup>1)</sup> 그러나, 미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로 인하여 의복의 기본개념이 변모하여 차별화 된 자기표현을 위한 개성과 독창적인 예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과학이 발달하여 컴퓨터를 통한 정보교환이 신속해진 현대사회는 전세계 문화의 획일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개성 표현과 기계에서 탈피한 수공예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복식에서도 이의 영향을 받아 수공예적인 디자인에 점차 관심을 쏟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급속도로 서양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권 안에 깊숙히 자리잡은 탓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서양의 문화가 남루하게 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전통 복식 문화를 고찰함으로써 현대 복식에 도입하여 새로운 개념의 개성적인 현대 복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승려복인 납의에서부터 출발한 누비옷은 처음에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의미하였으나 그 의미가 점차 변해 보온성과 내구력이 강한 특성으로써 직물보강의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미적인 용도로 확장되어 예술적 표현수단으로 그 가치를 새로이 인정받게 되었으며, 현대

복식에서의 한 모티브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누비는 직물이 가지는 평면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감과 3차원적 공간처리로써, 직물의 표현 가능성을 높여주어 예술의상의 제작에 빼 놓을 수 없는 소재의 독특함과 예술성, 창의성을 추구하는 기법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누비의 특성과 개념, 그리고 역사 등을 각 중 문헌과 사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에게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연적 요소인 나비를 모티브로 하여 나비의 날개가 가지는 색채를 보색대비의 조화, 유사색의 조화, 명암대비의 조화 등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자연이 가지는 색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날개의 형태와 시맥의 선이 가지는 운동감, 리듬감등의 선형구조를 의상의 구성선과 누비선에 도입하여 전통누비 기법을 응용한 새로운 복식 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비 날개의 린분 유무에 따른 재질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린분이 거의 없는 날개의 반투명한 특징을 이용하여 비치는 소재의 오간자를 누벼줌으로써 3겹의 직물이 투시되는 3차원적인 공간 효과를 얻어내고자 시도하였다. 린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날개의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속 재료인 펠트 솜을 노출시켜 누빔으로써, 포근한 나비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복식소재의 표현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현대 복식디자인에 있어서 고부가가치의 현대 복식디자인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누비의 특성과 개념, 그리고 역사 등을 문헌과 사진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누비의 종류와 기법 등을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작품의 모티브인 나비의 생태학적 특성과 조형적 분석을 통해 조형적인 선과 색을 디자인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나비의 이미지를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의 작품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누비의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의 질감 표현은 누비의 바느질 방법 뿐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전개하였으며, 소재 표현 방법으로는 나비날개의 린분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재질감의 특징을 응용하여 비치는 소재를 도입하여 누벼줌으로써 3차원적 공간표현을 하였으며, 펠트 솜, 오간자, 담담사, 타조털을 혼합하여 누빔으로써 부드러운 날개의 재질감을 표현하였다. 오간자와 펠트를 염색하는 기법과 펠트가 혼합되어 나타내는 색채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한 나비가 가지는 독특한 색상이 잘 나타나도록 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제작한 실물 작품은 총 4점으로, 원피스, 자켓과 쇼울 1점, 원피스 3점으로 구성되며, 누비의 특성들을 잘 살려 복식디자인의 소재 표현 영역이 확대되어 고급화와 차별화 되는 복식디자인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누 비

#### 1. 1. 누비의 개념 및 역사

##### 가. 누비의 개념

우리말 누비는 승복(僧服)인 납의(衲衣)의 국속어(國俗語)로서 납의(衲衣)의납(衲)자는 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누비를 영어로 풀이하면 킬트라고 하며, 그 어원은 라틴어의 '쿨시다'이며, 속을 채운 자루라는 의미를 가진다.<sup>3)</sup> 그러나, 그 어원과 오늘날의 누비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 누비라는 것은 "피륙을, 안팎을 맞추어서 그사이에 솜을 두어 죽죽 줄이 지게 바느질을 촘촘히 하는 흠질."<sup>4)</sup>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솜을 두어 양쪽 천을 누비는 작

업공정을 말한다. 즉, 겹감과 안감의 사이에 부피와 탄력성이 있는 물질을 넣어서 그 물질이 움직이거나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자의 임의대로 혹은 디자인된 패턴에 따라 안감, 속, 겹감의 3개 층을 함께 바느질로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또 두툼한 천을 겹쳐서 누비는 경우도 흔하다. 이 기법을 사용한 물건 앞에 붙여 누비옷, 누비이불 등으로 명명한다. 이렇듯 누비라는 말은 어원의 의미가 변해 누빈다는 바느질 기법을 뜻한다.

누비 속 재료로는 주로 명주 솜과 목화 솜을 사용하였고, 실은 옷감의 재질과 동일한 것으로, 색상은 겹감과 유사한 색으로 누볐거나 바탕 천과 무관하게 흰색으로 누볐다. 솜 누비 이전에는 닥나무나 칩 나무에서 나온 식물성 섬유나 동물의 털, 조선시대 누비에는 목화 솜 이외에도 저주지라는 종이를 넣어 솜이 병병하게 뜨는 것을 막고 솜이 가지런히 퍼진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 것도 있다.<sup>5)</sup>

이렇듯, 누비는 직물이 가진 평면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질감과 3차원적인 공간처리로서 직물의 표현 가능성을 높여주어 직물계에 큰 발달을 가져왔다. 이로서 현대에는 예술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 재료에 제한이 없이 어디에나 미적 효과를 위한 기법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 나. 누비의 기원

동양의 북아시아지역에서는 누비가 주로 침구와 마루 깔개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장식적인 역할도 하였다. 중동지역은 문헌에 B.C. 1000년부터 고대 이집트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직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침대 덮개나 돛 등을 만들었으며, 그 이전부터 누비를 사용했다<sup>6)</sup>고 나타나있다. 또한 중동지방에서 누빈 군복이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11세기 이전부터 이 기법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누빈 군복이 유럽으로 전해진 사실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세기 십자군에 의해서 사라센에 도입된 후, 널리 애용되었다고 한다.<sup>7)</sup> 인도에서도 누빈 군복이 투구와 함께 입혀졌는데 19세기까지 사용되었으며, 그 형태는 벨벳을 씌운 다음 그 위를 작은 못으로 장식했고 곳곳에 철판을 넣었다.<sup>8)</sup> 그러므로, 동양으로부터 누비가 전해져서 서양에서는 킬트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누비로는 소련의 고고학회 레닌그라드 지부에 보관되어 있으며, B.C. 100~200년경의 무덤에서 발견된 스키타이 스타일로 기하학적 문양과 동물문양으로 누벼져 장식되어 있는 깔개이다.<sup>9)</sup> 처음으로 누비를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중국의 경우 B.C. 1000년경부터 사용되었는데, 주로 겨울철 방한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동양의 누비는 신체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한국 누비의 역사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나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전(東夷傳) 예상(濊桑)에서 보면, 여자는 고(袴)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비단에 솜을 놓아 누빈 존의를 입었는데,<sup>10)</sup> 그 모양이 담유와 비슷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담유는 중국의 의복을 일컫는다. 이것으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누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오래된 누비는 부족국가 동예의 여인들의 복식에 나타난 것이라고 문헌에 기록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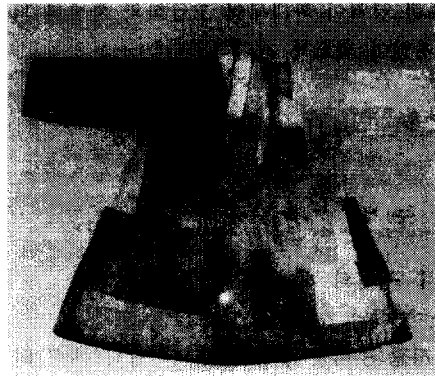
동예의 여인들의 존의는 비단으로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데, 누비의 형태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 후 동예는 고구려로 통합되면서 문화도 함께 흡수되어 누비의 전통은 고구려를 비롯하여 주변국가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고분 강신총 벽화에 무사가 입은 누비갑옷이 보이는데, 윗몸을 감싼 갑옷전체가 사선과 횡선으로 누벼있다. 이것이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누비옷이 아닌가 한다.

신라 통일기 이후 고려에 들어오면 복식사적 면에서는 암흑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나 고려시대 계림지에는 '우리 사람들이 남의 입기를 즐기는데 이것은 처음 승가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일반 고려인들이 입은 남의는 승가의 것처럼 기운 형태가 아니라 누비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sup>11)</sup>

본격적인 누비옷은 불가의 스님 옷인 남에서 비롯되었다. 서기전 7세기경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한 당시부터 불제자들은 고행의 한 수련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버린 여러 가지 낡은 형견을 모아서 누덕 누덕 기워 만든 남의 <그림 1> 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 남의는 민음이 깊은 신자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 천으로 만들되 남의 예서와 같이 기운 흔적을 살린 옷이 신자들 사이에 생겨나서 남의 라고 하다가 '누비옷'이라 일컫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누비 솜씨는 복식문화의 발달에 따라 더욱 섬세해지고 여러 복식에 원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기후관계로 오늘날과 같은 누비 법이 생겨났다고 할 것이다.<sup>12)</sup> 「고려도경」, 「용비어천가」 등에도 스님이 입는 남 가사, 남의에 관한 구절이 나온다. 세속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고행의 길만 바라는 불자에게 누비옷은 자주 빨지 않아도 되는데다가 길고 누벼 입을 수 있어서 대단히 실용적이었다. 이 같은 무사의 갑옷이나 스님의 남 가사, 남의는 특수신분의 옷으로 「고려도경」에는 고려시대의 가사(袈裟)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국사(國師)는 왕사(王師)밑의 지위로 그 복장은 가사(袈裟)에 장수편삼(長袖編衫), 자상(紫裳)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남가사(衲袈裟)의 남(衲)은 형견조각을 누벼 만들었음을 의미하고, 장수주편삼(長袖紬編衫)은 가사(袈裟)밑에 입는 소매가 긴 승려(僧侶)의 상복(上服)을 말하는 것으로 승복(僧服) 위에 가사(袈裟)를 걸쳤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림 1> 남의(출처: 복식)

조선시대 이전의 누비 실물은 발견된 것이 없어 그 기법이 어떠한지는 확인 할 수가 없으나, 일본 나라 시대의 정교한 유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앞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누비를 해 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조선시대의 누비는 저고리, 치마, 바지, 속바지, 대의를 비롯하여 여기에

부수되는 누비허리띠, 타래버선<그림 2>, 누비 토수, 처네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솜씨의 숙련됨으로 미루어 그 이전부터 성행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누비 실물 중에는 수의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출토되는 복식들이 파손이 심하고 심지어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의 것들이 많아 복원처리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지만, 정교하게 누비진 옷들은 수 백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그 형태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누비의 효과를 재인식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발굴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누비옷은 1965년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영리에서 발견된 안동 김씨의 수의 <그림 3>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김씨는 조선왕조 정종의 사위인 박 인의 5대 손부인데 440여년 전인 156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의 수의는 누비저고리와 겹저고리가 각기 한 벌 그리고 누비치마가 한 벌인데, 누비간격이 넓은 중 누비 하였고, 깃과 끝동에 넓게 다른 색의 직물을 이은 뒤 누볐다. 여기에 나타난 누비는 성글게 보이는 솜씨이나, 생 자와 사 자간의 누비옷의 구분일 뿐 당시의 누비기술이 뒤떨

어진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바로 오랜 세월동안 누비옷을 입는 과정에서 점차 바느질 차원에서 벗어나 미적 조형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sup>14)</sup>

이밖에 수의에 나타난 누비를 조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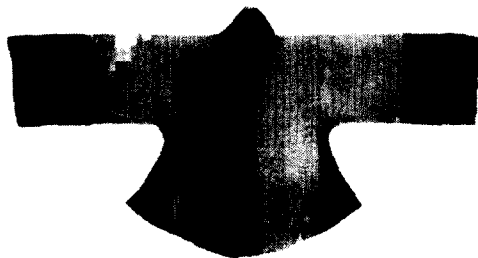
15C경의 남양 홍씨 수의 30여 점 중 누비저고리와 누비 포가 1980년에 출토되었다. 17, 18C의 전주 이씨 탐릉군 수의는 250년 전 귀족의 수의로 일습이 완벽하게 남아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관복, 누비 중치막, 철릭, 누비배자 등을 들 수 있다. 18C의 홍제유의 수의는 흰 명주 안팎에 솜을 넣어 누빈 옷인데 모양의 직령에 소매가 좁고 길며 무와설이 넓은 소창의이다.

누비옷은 민간의 의생활에 스며들면서 다양하게 퍼졌으며, 남성의 의복에 나타난 누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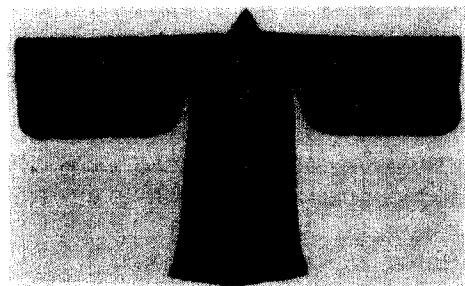
중요 민속자료 제 113호로 지정된 중치막 <그림 4>으로 조선시대 중기 홍진중 (1647~1702)묘의 출토품과 조선중기 순천 김씨(1530 임진왜란 이전)묘에서 출토된 철릭, 조선중기 홍우현(1667~1786)의 묘에서 출토된 누비두루마기이다. 이 누비두루마기는 명주에 누볐다. 안동 김씨 김 첨(1541~1548)과 김 첨의 딸(1579~1648)의 묘에서 출토된 장의는 끝은 깃에 사방이 막혀있는 두루마기 형태이며, 겹감과 안감은 명주이고, 솜을 두고 1.5cm간격으로 누빈 배자는 홍진중(1647~1702)묘의 출토품이고, 마석에서 출토된 17C 중치막, 여주에서 출토된 15C의 첩리 등이 있다.



<그림 2> 누비버선 (출처 : 우리규방문화)



<그림 3> 안동 김씨 수의 저고리 (출처 : 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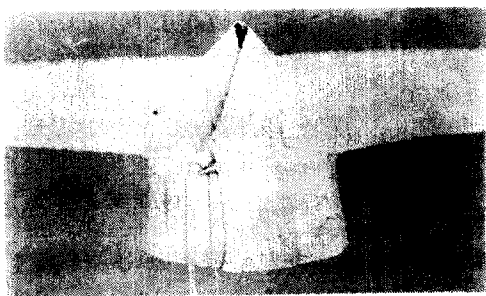


<그림 4> 중치막 (출처 : 한국복식2000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여성의 의복에 나타난 누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15C 남양 홍씨의 황색 명주 누비저고리, 17C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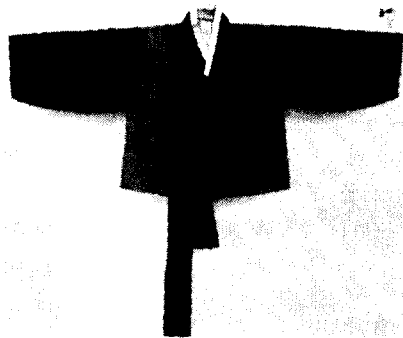
류층에서 서민까지 두루 입었던 누비저고리. 19C의 누비 삼회장 저고리가 있으며 조선시대 여자의 복식미는 하체를 부풀려 둔부가 마치 종을 엮어놓은 듯한 형상이었는데 여기에는 속옷의 역할이 컸으며 이 속옷에도 누비가 많이 나타나있다. 이밖에 어린이의 배부터 그 아리를 둘러 가리는 치마같이 생긴 옷으로, '두렁치마', '두렁이'라고도 한다.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것 난 아기에게 보온을 위하여 입히는데 겹혹은 숨을 넣어 누볐다. 이 두렁치마는 강화지방의 것으로 짙은 감색 무명에 숨을 두고 누빈 것이다.

궁중 누비는 명주옷에 참 솜이라 하여 명주 솜을 두어 누빈 것으로 귀족이 주로 선들바람이 부는 이른봄과 늦가을에 입었다. 1965년 중요 민속 문화재 제 4호로 지정된 이단하 부인의 누비저고리 <그림 5>는 이단하 부인이 평소에 입던 누비저고리이다. 누비저고리는 이른봄이나 늦은 가을에 솜옷이 약간 이른 듯 할 때 입는 옷이다. 누비저고리는 명주에 얇은 무명을 받치고 솜을 놓아 누빈 옷이다. 19C 덕원 공주 누비 삼회장저고리는 노란색 비단에 자주색 회장에 흰 안을 넣고 그 사이에 솜을 넣어 잘게 누빈 저고리인데 모양은 저고리 길이가 짧고 소매가 좁으면서 길고 소매부리에는 자주색 끝둥이 달려며 자주색 결막이에 자주색 당코 깃이 달린 저고리이다. 누비저고리는 일일이 손으로 누벼야 하였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뒤따라야만 하였다. 누비는 누비질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여느 바느질에 비해 공과 품이 많이 든다. 누비의 품값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용 의복에까지 누비가 사용된 점과 여성바지밑단 부분만 누비를 한 점등은 누비가 당시에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장식으로 여겨졌던 것을 추정하게 한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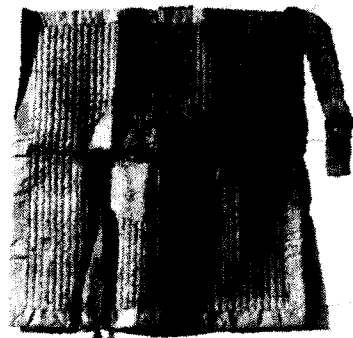


<그림 5> 이단하 부인 누비저고리(출처 : 衣)

조선 왕조 후기의 「궁중발기」를 보면 왕세자비가 입는 옷에는 비단 누비저고리<그림 6>가 많았고, 이 불 역시 누비이불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궁중용 보자기가 꽤 많다. 누비 보<그림 7>는 보자기를 누벼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 꾸밈새에 의해 누비 겹 보와 누비 식지보로 구분된다. 누비 겹보는 파손되기 쉬운 기물들을 싸둔 것으로 생각되며 누비 식지보의 용도는 앞서 말한 식지보의 경우와 같은데 앞에 말한 식지보가 여름철에 사용된 데 반해 이것은 음식물의 보온에 유의해야 하는 겨울철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색 화려하게 꾸민 누비 보자기는 기계 누비인 점으로 미루어 20C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잔누비저고리(출처 : 조선조 말기 왕실 복식)



<그림 7> 누비보(출처 : 허동화 collection 4)

누비는 천을 덧대어 누비질을 한다는 점에는 시대와 지역 구분 없이 같으나, 서구와는 조금 다르게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누비의 발달에 유교사회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바느질이란 여성들의 전용물이었다. 조선시대는 승유정책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외부출입을 규제시킨 폐쇄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일상생활을 집안에서 보내며 조용히 안방에 앉아서 바느질을 익히는 한편, 골무, 바늘꽃이, 주머니 등의 소품에서 족자, 의족, 병풍의 대작에 이르기까지 반 실용, 반 오락으로 바느질을 익혔다.<sup>16)</sup> 따라서 여아 나이가 10세가 되면 바늘을 잡기 시작했으며, 비록 사가에는 침모가 바느질을 전담하고, 궁중에는 침방이라 하여 바느질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었다고는 하나, 바느질은 모든 여인들에게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폐쇄사회였던 만큼 외국과 같은 활발한 디자인의 교류라던가 다양한 발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직 바느질을 얼마나 안전하고 섬세하게 하느냐가 문제였던 것으로, 이는 누비 유물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 1. 2. 누비의 종류와 기법

누비는 방법은 흠질로 평행, 직선 등으로 누비는 데, 누비의 넓이와 두께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진다. 조선시대의 「궁중발기」에는 오목누비, 중 누비, 잔(세목)누비, 세중 누비, 납작 누비로 구분하고 있다.<sup>17)</sup> 이외에 줄 누비, 상침누비 등의 방법도 있다.

오목누비는 주로 두터운 솜옷이나 이불 등에 쓰였는데 누비 끝이 넓고 깊게, 즉 오목하게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 누비는 솜을 적당히 두어 중 정도의 넓이로 누빈 것이다. 누빈 넓이와 솜의 두께와 바늘땀은 대체로 비례했는데, 솜을 얇게 두면 누비의 넓이와 바늘땀이 좁았고, 솜을 두껍게 두면 누비 넓이와 바늘땀이 넓었다. 흠질이 촘촘한 잔 누비는 솜을 얇게 두어 흠질 줄의 간격이 1mm 정도인 것이 있어,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민예 또는 수예로 전승이 아쉬운 기법 중의 하나다.<sup>18)</sup> 줄 누비는 얇은 솜을 두어 누빌 때 누비 뒷면에 풀칠을 하여 밀대나 가는 인두로 다려서 누비 표면과 동일하게 흠이 지게 누비는 것을 말한다. 납작 누비는 솜을 두지 않고 실밥이 도드라지게 누비는 것이고, 상침누비는 실을 새땀 내지 다섯 땀 홀수로 연속하여 누비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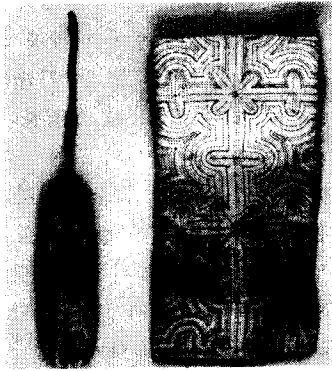
이처럼 누비 기법은 품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용성뿐 아니라 장식성을 고려한 데서 연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누비질할 때에는 천의 안팎이 밀려나지 않고 고르게 하기 위해 보조 구로 밀대를 사용하였는데, 밀대는 대나무 길이 25cm, 지름 2cm 정도의 원통형으로 다듬어 만들고, 자개나 화각 등으로 장식하기도 한다.<sup>19)</sup> 이 같은 방법은 보통 바느질보다 어렵고 자수보다는 쉬워 바느질과 자수의 중간 단계로 보인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면에서 보아도 바느질은 실 자국이 숨겨진 데 반해 누비는 직선, 사선, 마름모꼴 또는 곡선, 원형의 형태가 표면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누비는 민속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연속된 누비 실이 길게 뻗어 나갔다 하여 장수를 상징하고, 밭고랑을 나타내는 누비 꼴을 빗줄기에 비유되며, 더불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그리고 방문에 치는 누비 침장은 사선의 그물 무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치면 악귀가 그물에 걸려 방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속신이 있다.<sup>20)</sup> 청홍 색실을 사용한 누비 역시 양색으로 제액초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누비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강원도에서는 누비옷은 한국의 특수 옷의 하나로, 보통 여자가 지었다. 가는 줄 누비가 원칙이며 혼수에 누비바지를 넣어 평생 입었으며, 누빈 너비는 가늘 때는 0.5cm정도이고 누비바지를 할 때에는 가랑이 쪽 아래로 반은 가늘게 누비고 허리 쪽은 굵게 누벼 지었다.<sup>21)</sup> 여기서 강원도의 누비는 줄 누비가 원칙이었고 누비바지가 혼수에 포함된 정도로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 누비 품목의 천으로는 비단은 물론 무명도 많이 사용했고, 목화 솜을 두기 전에는 버들 솜과 참 솜을 두어 누웠다.

자수와 누비는 침선 문화에서 갈라져 나온 자매와 같다. 누비는 자수를 배우는 기초단계에서 훈련 삼아 하는 바느질의 일종으로 보인다. 보통 뒷면이 안 보이니까 뒤에서 바늘을 꽃아 올릴 때 숙련되지 않으면 원하는 위치로 올라오지 않아 뻘뻘 뻘뻘하다. 그래서 자수를 배우는 초보자에게 누비 바느질을 시켜 일직선으로 땀 새가 고르도록 연습시킨다. 고급스러운 것일수록 땀 새가 짧고 일정해야 한다. 이것이 숙련되면 곡선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바느질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색실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색채 누비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색과 문양을 조화시켜

완벽한 자수를 놓는다. 누비는 옷뿐만 아니라 잦은 쓰임새로 쉬이 마모되는 싹지나 신축성이 약한 목침에 걸쳐놓는 배개잇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그림 8>의 담배쌈지기법은 누비와 누비사이에 실 등을 넣어 입체감을 더욱 살려주는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누비는 정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공예이기도 하다. 바느질 자체가 경정 대는 몸놀림이나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땀 한 땀 찬찬히 색과 문양을 넣어야 한다. 어떤 공예나 예술 못지않게 누비는 수고와 미적 감각을 필요로 한다.<sup>22)</sup>



<그림 8> 싹지 안경집  
(출처 : 한국복식 2000년(국립 민속 박물관 소장))

형태적 분석으로 나타난 누비를 전통 누비기법부터 현대에 변형되어 나타난 누비 기법들을 표로 제시해 보았다.

<표 1>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전통 누비의 형태는 대부분 평행 수직선으로 줄 누비 형태를 이루며, 조선조 후기에는 장식적 효과를 위해 대각선 형태의 누비가 나타난다. 줄 누비는 복식류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장식적 문양이 들어간 누비는 생활 용품에 사용되었다. 현대에 와서 누비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표 2>와 같이 정사각형 문양, 다이아형 문양, 변형 다이아형 문양, 구름 문양, 완자형 문양, 단독 문양 등으로 나타난다. 현대에도 줄 누비, 사각형 문양, 단독형 문양이 복식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기법들은 이불이나 베개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 1. 3. 현대복식에 나타난 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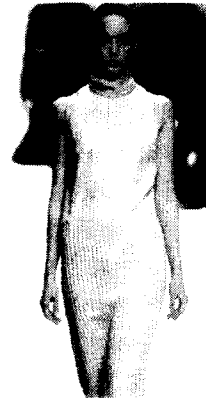
획일화된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차별화와 개성화에 대한 요구가 현대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주

어 현대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소재개발과 모티브의 발견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누비가 복식소재로 주목받은 것은 70년대에 넉슨이 중국을 방문한 후 세계적으로 중국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중국모드와 함께 중국식 누비가 복식의 모티브로 등장하면서 방한복 안감으로 쓰이던 누비가 점차 복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컬렉션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79년 겨울 '에너지 절약형 의상'으로 개발, 유행되었던 누비의상들이 중국선봉과 더불어 따뜻함과 실용적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인기를 끌었다. 스포츠 의류를 평상복의 감각으로 입는 법이 익숙해지면서 누비는 더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sup>23)</sup> 이처럼 원래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던 누비기법은 현대에 와서 점차 미적, 예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현대 디자이너들이 의상에 사용한 누비를 기법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선형의 누비를 사용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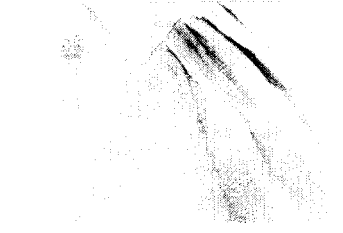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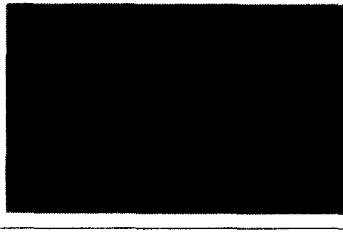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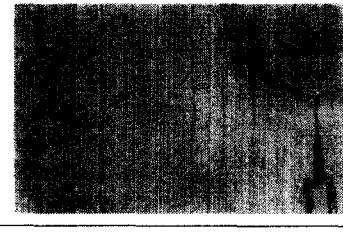

빌 캐저만(Bill Kaiserman)의 작품은 가로줄 직선 누비를 이용하였으며,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의 작품은 경쾌한 직선으로 곧게 뻗은 선의 느낌이 심플하면서 스포티한 스타일로 보여진다. 이영희의 작품은 전통 누비 중 잔 누비를 사용한 작품이다. 한복의 현대화를 잘 나타내주는 겹옷으로 전통한복 위에 입어서 추위를 방지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내주는 작품이다. 로랜스 스틸(Lawrence Steele)의 작품<그림 9>는 원피스 아래 부분에만 줄 누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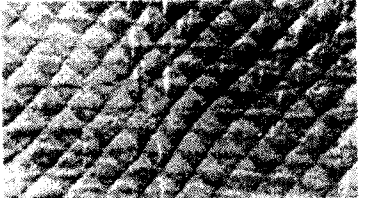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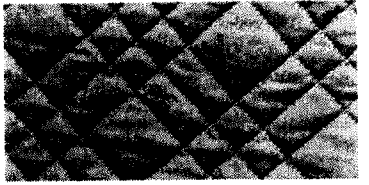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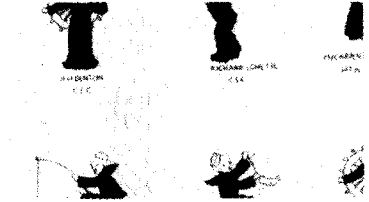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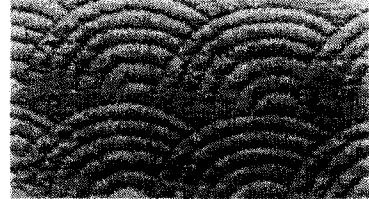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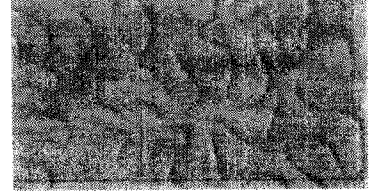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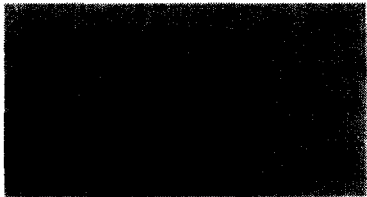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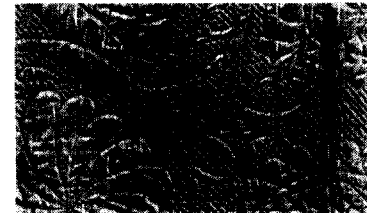
<그림 9> Lawrence Steele의 작품  
(출처 : Gap Press Vol.19)



<표 1> 전통누비기법

종 류	특 징	형 태
오목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솜을 두껍게 두어 좀 넓게 누벼 오목오 목한 효과를 내는 방법.</li> <li>· 두터운 솜옷이나 이불에 많이 이용.</li> <li>· 누비폭은 0.6cm~0.8cm</li> </ul>	
잔 누 비 (세 누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솜을 얇게두어 누비폭을 촘촘히 누비는 방법.</li> <li>· 자연의 수평선에서 본 만 직선형의 기 하학적 이방연속의 문양이다.</li> <li>· 상류층 저고리나 속옷에 많이 이용.</li> <li>· 누비폭은 0.4cm~0.9cm</li> </ul>	
중 누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솜을 적당히 두어 중 정도의 넓이로 누 비는 방법.</li> </ul>	
줄 누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얇은 솜을 두어 누빌 때 누비뒷면에 풀 칠하여 밀대나 인두로 다려서 누비표면 과 동일하게 흡이지게 누비는 방법.</li> </ul>	
납작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솜을 두지 않고 실밥이 도드라지게 누 비는 방법.</li> <li>· 누비폭은 1cm~3cm</li> </ul>	
상침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을 세 째내지 다섯 째 흡수로 연속하 여 누비는 방법.</li> </ul>	

종 류	특 징	형 태
정사각형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명 바둑판 무늬라고도 하며 창살무늬에서 본 판 정방형의 기하학적 사방연속무늬다.</li> <li>· 모든 계층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방석, 의복류에 많이 보인다.</li> <li>· 세련된 느낌을 주며 간격이 넓을 때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진다.</li> </ul>	
다이아형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살무늬에서 본 판 기하학적 사방연속 문양이다.</li> <li>·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베개, 이불, 의류 등에 많이 나타났다.</li> <li>· 세련된 느낌을 준다.</li> </ul>	
변형 다이아형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살무늬에서 본 판 기하학적 사방연속 문양이다.</li> <li>· 베개, 방석 등에 다이아형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li> </ul>	
변형 다이아형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이아형에서 변형된 기하학적 사방연속 문양이다.</li> <li>· 베개, 방석 등에 나타나고 있다.</li> <li>· 곡선형의 흐름이 자유롭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li> </ul>	
변형 다이아형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선형의 단독문양이다.</li> <li>· 방석과 베개 등에 나타나며 짜임새가 없어 보인다.</li> </ul>	
구름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의 구름에서 본판 곡선형의 기하학적 이방연속형 문양이다.</li> <li>· 모든 계층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불의 가장 자리 장식용으로 쓰이고 있다.</li> </ul>	
완자형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에서 본판 곡선형의 자유형문양이다.</li> <li>· 덧버선, 방석, 베개, 의복류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li> <li>· 입체적인 효과가 크고 견고성이 높다.</li> </ul>	

종 류	특 징	형 태
총 알 형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알의 형태에서 본뜬 이방연속문양이다.</li> <li>· 방석과 소품에 조금씩 보이나 직선형으로 날카로운 느낌의 미적인 효과가 걸여된 형태이다.</li> </ul>	
스프링형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프링을 늘어뜨린 형태의 이방연속 무늬다.</li> <li>· 이불과 베개에서 보이나 미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li> </ul>	
산 모 양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선형의 이방연속형 문양이다.</li> <li>· 방석과 의복류에서 볼 수 있으며 남자용 의류에는 무난한 것 같다.</li> </ul>	
파베기형 / 더 블 파베기형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명 복숭아형이라고도 한다.</li> <li>· 꼬아올린 듯한 이방연속형 문양이다.</li> <li>· 이불, 베개, 방석 등에 약간 나타나고 있다.</li> <li>· 부드러운 느낌이다.</li> </ul>	
단독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형의 문양으로써 쿠션, 방석 등에 나타나고 있다.</li> <li>· 드물게 보이는 것으로 부드러운 느낌이다.</li> </ul>	

범으로 누웠으며, 보온의 효과보다는 미적인 요소로 줄무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의 소재이지만 누빈 부분과 누비지 않은 부분이 다른 소재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미니멀한 스타일의 의상에 변화를 주는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학생작품 중에는 누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속 재료를 숨이 아닌 줄을 넣어 나타냈으며, 배천범의 작품은 줄 누비를 사용하여 동양적인 표현과 소재의 고급화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전양배의 작품은 상의에 직선누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통누비 중 납작 누비에 속한다.

둘째, 곡선형의 누비를 사용한 경우이다.

페레의 작품 <그림 10>은 물결문양의 누비기법이 쓰였으며 상의 형태로 입는 점퍼이다. 평범한 스타일이지만 소재를 누벼줌으로써 보온성이 생겨 추운 겨울에 간편히 걸쳐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의상이 됨과 동시에 차별화 되는 디자인으로 보여진다. 야마모토 간사이의 작품은 단색의 옷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누벼줌으로써 미적인 효과를 넘어 예술적인 측면까지 나타내 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산모양 문양과 다이아몬드문양, 줄 누비 등 여러 가지

누비모양을 찾아볼 수 있으며 넥크에는 주로 곡선형의 누비로 강조하였다.



<그림 10> Gianfranco Ferré의 작품  
(출처 : Fashion Review 90·91 F/W)

셋째, 사각형의 누비를 사용한 경우이다. 컴플리스(Complice)의 작품은 속에 쓰이는 누비의 예이며, 누빈 모양은 다이아몬드형을 취하고 있다. 비비안 탐(Vivian Tam)의 작품도 누비모양은 다이아몬드형이고, 숨을 두툼하게 넣어 울룩불룩한 입체적 효과가 강조되는 스타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작품은 보통 패딩이라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용도의 누비를 보여주며, 전통 누비 기법 중 오목누비와 근접한 누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컴플리스의 작품은 두툼하게 누벼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누비는 선들을 이용하여 조형적이고 기하학적인 선으로 표현하여 방한의 효과에 미적 요소를 나타낸 좋은 예이다. 다릴 케이(Daryl K)의 작품 <그림 11>은 기본 점퍼 스타일에 숨을 얇게 두어 정사각형 문양으로 누웠으며,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의 현대적인 작품이다. 로저 마르스(Roser Marce)의 작품은 동양적인 실루엣에 소재를 누벼줌으로써 한층 동양적인 느낌을 준다.

넷째, 단독문양의 누비를 사용한 경우이다.

레베카 다넨버그(Rebecca Danenberg)의 작품은 가죽을 누벼줌으로써 보온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장식적인 효과도 나타나며, 산모양의 누비기법을 이용하였다. 미소니(Missoni)의 작품은 미소니 특

유의 기하학적인 색채구성을 선으로만 나타내었고, 단독형 누비기법을 사용하여 예술적인 느낌을 더해 준다. 알베르토 비아니(Alberto Biani)의 작품 <그림 12>는 꽃 문양을 반복하여 단독형 문양누비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기존의 꽃 프린트 문양과는 다른 공예적 이면서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이기향의 작품은 회화적으로 문양을 그려 이를 입체적인 표현의 수단으로써 누비를 사용하였다.



<그림 11> Daryl K의 작품  
(출처 : Gap Press Vol.19)



<그림 12> Alberto Biani의 작품  
(출처 : Gap Press Vol.19)

## 2. 나비의 특성과 조형성

### 2.1 나비의 조형적 분석

'자연은 화가의 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은 흔히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인 것이다.<sup>24)</sup> 우리는

자연의 형태들을 관찰함으로써 잠재적 조형의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며 자연의 법칙성을 관찰함으로써 조형사고(造型思考)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법칙성이란 구조적 상관성으로 형태의 특성에 나타나는 기능과 형태와의 관계, 형태의 생성과 소멸 같은 형태변화의 법칙과 같은 조형원리로서의 미적 특성을 파악함이다.<sup>25)</sup> 자연형태와 조형과의 관계는 적응성의 발견에 있으며 이는 추상적 개념, 미적 특성, 구조적 특성, 동적 특성에 대한 관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연의 다양한 형태변화와 구조의 질서성은 독특한 균형유지에서 이루어지며, 전환과정, 변형과정, 성장과정에서 관찰을 하고 그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을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계기<sup>26)</sup>가 되며 자연에 대한 정밀한 관찰은 단순한 모양이나,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닌 그 속에 존재하는 특질을 찾아내어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자연의 한 부분인 나비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의 확대, 반복, 분해, 단순화의 조형성과 색채 구성을 통하여 나타난 조형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가. 나비의 형태

'형'이란 우리가 지각하는 어떤 것, 즉 의미를 가지는 조형 대상 안에서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이다.<sup>27)</sup> 우리들이 형에 대하여 편의상 내세운 가정의 하나는 기하학적 형상이 기계성을 암시하는 반면에 비정형적이고 곡선적인 타원형은 생물적 특성을 암시한다는 것인데,<sup>28)</sup> 기하학적 형상은 자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도치(Gyorgy Poczi)에 의하면 잠자리, 나비, 가오리, 다슬기 등 수많은 자연물의 형태에서 황금분할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는 대개의 자연 사물들은 비정형적, 비규칙적, 불균형적인 유기적 형태로 느껴지는 수가 많다. 나비의 날개형태의 크기를 과장하여 날개 모습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크기는 뚜렷한 시각적 강조를 드러낸다. 예술 작품 안에서의 크기는 조그만 것들이 크게 확대되거나 큰 것들이 아주 작게 축소될 때 발생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과장된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부분적 확대를 통해 날개를 관찰해보면 수많은 계층들의 구조가 정교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날개는 여러 개의 날개 맥에 의해 방(室)으로 구분이 되는데, 날개 맥이 하나의 선이 되어 방(室)을 여러 가지 조형적 형태로 결정짓게 하며, 형태는 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인간은 형에 따라 대상을 인식하므로 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크기의 날개를 반복에 의해 표현하여 리듬감과 함께 강조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리듬이란 자연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계절의 변화를 포함하여 낮과 밤, 조수간만의 변화, 그리고 우주의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어떤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을 교차하는 리듬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모티브가 계속 교차, 반복됨으로써 규칙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하며, 반복은 어떤 형태나 공간사이에 동일한 요소나 형식이 중복되어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은 시선을 이동시켜 동적인 느낌을 주며 시각적으로 강조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 나. 나비의 색채

나비의 날개가 가지는 문양과 색채는 어느 곤충들보다 화려하다. 이러한 날개의 색채는 날개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빛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물은 그 자체의 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백색광 가운데 단지 어떤 특정광선을 반사시키는 능력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파장으로 보이는 물체는 파랑 색을 제외한 모든 광선을 흡수하며 검은 물체는 모든 광선을 흡수하고 또한 흰 물체는 모든 광선을 반사는 것이다.

나비날개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Papilionidea(호랑나비과)의 *Sericinus montela* Gray(꼬리명주나비), Nymphalidae(네발나비과)의 *Agrias amydon* Zenodorus 등의 날개에 나타난 Orange 색과 Sky Blue색은 보색 대비 조화(Complimentary Harmony)로써 나란히 놓으면 각각의 선명도가 더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효과는 각각의 보색이 서로의 선명도를 동시에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동시대비라고 하는데 이는 선명한 색채효과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Pieridae(흰나비과)의 *Gonepteryx rhamni* (멧노랑나비) 등은 유사색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유사색의 조화(Analogous)라고 하며, 주로 서로 인접한 색채끼리 나타나있어, 귀여운 느낌을 주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느낌을 준다.

Pieridae(흰나비과)의 *Pieriscandia*(대만 흰나비)와 Papilionidae(호랑나비과)의 *Parnassius stubbendorffi* Meneeries(모시나비)등의 색채는 무채색끼리의 조화(Achromatic)로 white, black, gray는 서로서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채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색채의 조화를 인위적인 색채배열을 통해서가 아닌 자연물, 즉, 나비의 날개가지는 색채의 조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의 형태나 색채들을 본다는 모든 행동은 하나의 시각적 판단이며,<sup>29)</sup> 시각은 자신의 시야를 분별하고 판별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므로 시각은 사고의 일차적 매체가 된다.<sup>30)</sup> 그러므로, 시각은 곧 시지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 그러한 고유의 형상을 취하여 개념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시각은 대상의 본질 파악의 기능을 가지며 적극적이고 탐색적이므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즉각적으로 대상의 성질을 파악해 내는 것이다.

#### 다. 나비 날개의 질감

한 물체의 표면은 재료, 조직, 정밀도, 질량감, 건습도, 온도, 빛의 반사도 등에 따라 시각적 감지 효과가 달라진다. 질감에는 크게 재료, 빛의 반사도 등의 시각적 질감과 촉촉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혹은 건조하다든지 거칠다든지 하는 즉,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촉감적 질감으로 나뉜다. 이들은 대개 우리의 일상 경험에 따라 시각적인 동시에 촉감적인 질감을 같이 가지고 있어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sup>31)</sup> 실제로 느끼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기억 속에서 감각적 반응이나 촉각적 감각을 일으킬 수 있다. 사실 다양한 질감의 여러 가지 밝고 어두운 형상은 우리가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 준다.<sup>32)</sup> 윤택이 있는 나비 날개의 표면은 마르고 회끄므레하며, 광이 없는 표면보다 더 많은 양의 광을 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가진 색상이

더 화려하게 보인다. 이와 같이 촉감과 시각적 경험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사물은 촉감과 같이 시각적으로도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거칠게 보인다. 또한 질감은 광을 흡수하거나 반사함으로써 색채를 말한다. 질감과 색채는 직접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색채도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거칠거나 부드러운데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면으로 말미암아 질감은 시각 예술에 있어서 형상, 크기, 색채와 더불어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시각예술에서 모든 표면은 네 가지 기본 질감의 어느 하나가 변화한 상태이다. 즉, 거칠고 광택 없는 것, 거칠고 윤기 있는 것, 부드럽고 광택 없는 것, 부드럽고 윤기 있는 것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이다.<sup>33)</sup> 모시나비의 날개는 린분이 적어 반투명하며 조직이 성글어 보이고 약간은 거칠면서 윤기가 있는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나비 날개에 린분이 많으면 부드러운 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포근하면서 부드럽고 광택이 없는 질감이다. 반면 린분은 날개를 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 맞은 날개는 부드러우면서 윤기 있는 질감을 가진다. 네발나비의 날개질감은 부드러우면서 광택이 있는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질감으로 빛을 반사하여 색채가 더 화려하게 느껴진다. 나비 날개 끝 부분이나 몸통과 날개의 연결 부분의 털은 날개의 부드럽고 가벼운 질감으로 포근하면서 가벼운 느낌을 준다.

## 2. 2. 나비의 특성 및 종류

나비는 한문자로 「蝶」이라 쓰고, 곤충 가운데서 나사 모양의 긴 주둥이를 가진 것으로 2쌍의 아름답고 큰 앞 모양의 막질(膜質)날개가 있으며, 날개에 많은 날개가루(鱗粉)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34)</sup>

나비의 몸은 크게 머리, 가슴, 배의 3부분으로 되어있다. 머리에는 한 쌍의 촉각과 한 쌍의 겹눈과 대개 2개의 홑눈이 있다. 촉각은 여러 가지 냄새를 맡는 기관이고 이것으로 다른 나비들의 위치도 알게 된다. 겹눈은 수많은 날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모양은 6각형이다. 또 머리에는 입 틀이 있고, 꽃의 꿀, 과일의 진물, 나무의 진물 같은 것을 빨아먹

기 좋게끔 생겼다.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네발 나비과의 나비들은 모두 앞다리가 퇴화하여 없어지고 있다. 날개의 모양은 무리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색채와 무늬는 어느 정도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날개는 여러 개의 날개 맥에 의해서 많은 방(室)으로 구분되며, 이 방과 날개 맥에는 각각 편의상 명칭을 붙이고 있으며, 기왓장 모양으로 질서 정연하게 비늘가루가 꽂혀 있는데, 이것이 나비의 몸을 비에 젖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색채와 무늬를 나타나게 한다. 비늘가루 가운데는 발향린(發香鱗)이라고 하는 특수한 냄새를 낸다. 이것은 수컷에만 있어서 암수구별과정에 도움을 준다.<sup>35)</sup> 다리는 앞가슴과 가운데 가슴, 뒷가슴의 각 마디마다 1쌍 있다. 배에는 홍문과 교미기가 있으며, 각 마디마다 기문이라고 하여 숨을 쉬는 구멍이 있다. 이 마디의 수는 대개 수컷은 8개, 암컷은 7개이다.

나비는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으로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시기를 뚜렷하게 거친다. 그 가운데 아름답게 몸치장을 하는 시기는 성충 때이며, 애벌레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배추벌레와 같이 징그럽고 색깔도 곱지 않다.

나비의 종류에는 Family Papilionidae(호랑나비과), Pieridae(흰나비과), Lycaenidae(부전나비과), Nymphalidae(네발나비과), Hesperidae(팔랑나비과)의 4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Family Papilionidae(호랑 나비과)는 전세계적으로 약 600종이 알려져 있으며 주로 아열대에서 열대에 이르는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날개가 아름답고 대부분 뒷날개에 있는 꼬리모양돌기가 발달한다. 크기는 대형이다.<sup>36)</sup> Pieridae(흰 나비과)의 나비는 대체로 날개가 흰색과 황색으로 풀밭 위를 낮게 날아다니다가 각종 꽃에 잘 모인다. 지금까지 전세계에 약 2000종이 알려져 있다. Lycaenidae(부전나비과)의 나비는 대체로 소형의 나비이며 날개 윗면이 금속성 청람 빛이나 주홍색이 도는 등 색채와 무늬가 뛰어나다. 뒷날개에 꼬리모양돌기가 길게 발달한다. 빠르게 날다가 물가에서 물을 빨거나 각종 꽃에도 잘 모인다. 지금까지 전세계에 약 600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Nymphalidae(네발나비과)의 나비의 크기는 중형에서 대형이다. 앞다리가 퇴화하여 걸을 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종류로 기존의 빨나비과, 왕나비과, 뱀눈나비과를 한 데 묶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0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Hesperidae(팔랑나비과)의 나비의 크기는 소형이다. 대체로 날개에 비해 머리가 크고, 더듬이 밑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끝은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날개의 색은 다갈색, 흑색 등 어두운 색이 많다. 각종 꽃에 잘 모이고 축축한 습지에 잘 내려앉는다. 전세계에 300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 2. 3. 나비를 모티브로 한 현대 복식 디자인

인간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터득하여 왔으며,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여 왔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들 나름의 형태적 구조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며 존재를 부여한다. 이처럼 인간 활동의 모태는 자연이고 인간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체득한 미를 표현하고자 노력한다. 자연은 예술의 근원이며 인간이 표현하는 예술의 이상이었기에 오래 전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자연의 미를 찬양하고 동경하여 나름대로 재현과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미를 창조해왔다. 자연의 모티브 중에서 의상에서는 꽃을 주제로 나타낸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꽃의 장식적 요소로 사용 되어오던 나비가 현대로 오면서 점차 디자이너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나비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꽃 모티브와 유사한 이미지로 여성스러움과 다양한 선과 형태로 창조될 수 있는 모티브로 인정받고 있다. 나비가 의상에 표현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식적인 요소로서의 나비가 표현되었다.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ant)의 작품은 상의와 하의에 나비의 화려한 색채와 형태를 단순화하였으며, 눈에 띄게 입체적으로 나타내었다. 하나에 모리(Hanae Mori)의 작품 <그림 13>은 나비를 의상의 문양으로 나타내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나비 문양을 비드 워크하여 화려한 나비의 색

체를 강조한 작품이다. 모리시오(Maurizio)의 작품은 나비 프린트로 공중에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나비표현으로 귀여우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 D&G의 작품은 캐주얼한 진 소재의 바지 위에 심플한 상의를 입었는데, 상의에 세 마리의 나비가 여성스러움을 더해주어 매니쉬한 것에 여성스러움의 가미로 새로운 느낌을 준다. 지방시(Givancy)의 작품은 평범한 디자인에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 작품으로 아이템 하나를 특이하게 변형하여 소품으로 나비를 응용하였다. 나비를 장식함에 있어서 예술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엘자 샤파렐리(Elsa Schiaparelli)의 작품은 나비를 의상의 부자재로 응용하여 단추의 역할을 하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로랑의 작품은 모자에 나비장식을 하여 기본적인 의상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3> Hanae Mori의 작품  
(출처 : Hanae Mori 1960-1989)

둘째로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여 조형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97년에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는 곤충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들을 Haute Couture collection에 선보였는데<그림 14>, 나비날개를 조형적인 선으로 재구성하여 벵크의 칼라로 사용하였고 스커트 부분에 시스루 소재를 이용하여 가볍게 날아갈 것 같은 나비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허리선과 힙을 중심으로 하여 나비의 형태적인 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인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한 작품은 나비의 화려한 색채를 깃털 소재로 하여 특이하고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모리의 작품은 나비가 날아갈 때

의 환상적인 날개 표현을 한 작품으로, 날개의 문양을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내었다. 또한 날개 전체 형태를 여성스럽게 표현하였다. 스잔나 르위스(Susanna Lewis)의 작품은 나비의 전체 형태를 이용하여 인체와의 조화를 나타내었으며, 나비 몸통을 인간이 대신하여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장 윌리엄스 카시세도(Jean Williams Cacicedo)의 작품은 니팅하여 패치워크 한 것으로 마치 숲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는 듯하게 표현하였으며, 르위스의 작품은 나비의 더듬이를 과장의 표현으로 조형적인 선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율동적인 동그란 선을 기하학적인 타원형으로 단순화하여 문양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작품은 나비날개를 조각조각 분해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반복을 통한 율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얇은 소재의 겹침 효과로 인해, 걸을 때 나풀거리는 모양이 나비의 이미지 표현으로 적합하다.



<그림 14> Thierry Mugler의 작품  
(출처 : Fashion News Vol.40 97 S/S)

### Ⅲ. 작품 제작

#### 1. 작품 제작의도 및 방법

현대복식을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먼저 전통 복식의 고찰과 수공예적이고 개별적인 소재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내구력과 보온의 효과 등 신체보호의 차원에서의 실용성 위주였던 누비기법이 현대에 와서 실용적 요소



뿐만 아니라, 미적, 장식적 요소를 갖춘 예술영역으로의 확장에 이르게 되었다.

자연은 예술의 근원이므로 예술가들은 자연 안에서 모티브를 찾아 왔다. 자연의 모티브 중에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는 꽃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가 흔하며, 나비는 꽃의 장식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나비가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나비 날개의 색채, 형태, 문양, 질감 등을 의상의 구성 선과 색채구성, 새로운 질감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 모티브를 누비 기법과 함께 적용하여 보다 다양한 질감과 형태를 표현하고, 복식 디자인의 독창성과 조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나비 날개의 형태와 시맥의 선을 확대, 분해, 반복, 단순화하여 작품의 구성 선과 누비 선에 사용하였으며, 조형적인 누비 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비의 구조적인 형태 중 조형작업에서 필요한 부분만으로 형태를 과감히 생략, 축소하는 단순화과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나비의 이미지에 접근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기법으로는 누비 기법, 징김수·매듭수·사슬수 등의 동양 자수 기법, 코바늘 뜨기 기법, 염색 기법 등이 사용되었다. 작품의 소재로는 펠트, 오간자, 담담사, 펠트사, 지사 등의 여러 종류의 털실과 투명사, 타조털 등을 사용하였다. 나비 날개 린분 유무에 따른 질감을 펠트 소재를 응용하였는데, 린분이 많은 날개의 포근한 느낌을 위해 펠트, 담담사와 타조털 등을 혼합하여 누비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린분이 없어 날개가 반투명한 질감은 비치는 소재인 오간자, 담담사를 이용하여 누벼 줌으로써 3겹이 투시되는 3차원의 효과를 표현해 보았다. 작품의 가장자리 처리로는 담담사로 크로세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나비 날개 끝의 털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작품에 사용된 색의 구성은 색채 조화에 따라 나비의 날개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보색 대비의 조화· 유사색의 조화· 명암대비의 조화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나비 날개가 가지는 화려한 색채를 펠트와 오간자를 염색하는 기법과 펠트가 혼합되면서 나타내는 색채 그라데이션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에 따른 실물 작품은 총 4점이며, 원피스, 자켓과 쇼울 1점, 원피스 3점으로 구성되며, 실루엣은 여성

미와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제작하였다.

## 2. 작품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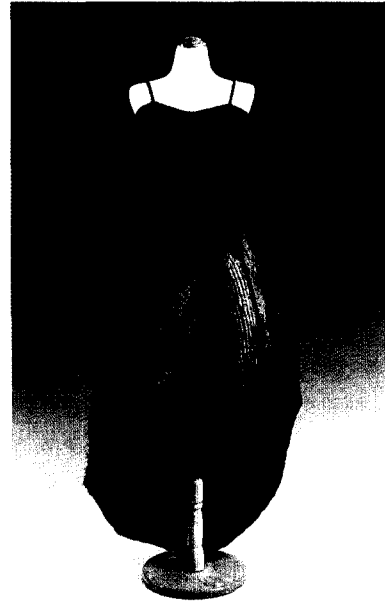
[작품 1]의 앞면



[작품 2]의 앞면



[작품 3]의 앞면







[작품 4]의 앞면

#### IV. 결론 및 제언

복식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문화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와 풍토, 사회구조 및 경제적

여건과 생활풍습, 그 사회의 종교 문제 등에 따라 독특한 복식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나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전세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세계의 복식문화가 획일화되어 가면서, 현대화에 따른 우리의 고유

번호	모티브	구성	소재	색상	기법	해설	실루엣
1	Sericinus montela Gray 꼬리 명주나비 (호랑나비과)	원피스 드레스	펠트, 타조털, 담담사	Ivory, Brown, Orange, Sky Blue	누비 기법, 크로세 기법	호랑나비과 나비는 날개가 아름답고 대부분 뒷날개에 있는 꼬리모양 돌기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뒷날개의 형태적 특성을 원피스 밑단의 구성 선으로 도입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담담사를 전체적으로 깔고 타조털을 호트러 놓은 위에 다시 펠트를 덮고 기존의 펠트를 비는 기법이 아닌 그대로 누비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펠트끼리 혼합되어 나타내는 색채 그라데이션 효과도 표현 될 수 있었다. 누비 선은 나비의 시맥의 세로 맥과 가로 맥의 선을 따라 누벼서 나비 날개의 특성 및 다양한 선을 나타내었다. 나비 날개의 색상은 Orange, Sky Blue색의 보색 대비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나비 날개 끝의 털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자리 처리를 부실 부실한 털이 살아있는 담담사를 이용하여 크로세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p>2</p> <p>Lycaeides argyrognomon 부전나비 (부전나비과)</p>	<p>스리브리스원피스, 자켓, 쇼울</p>	<p>펠트, 타조털, 담담사, 지사, 코드사, 펠트사등</p>	<p>White, Ivory</p>	<p>누비 기법, 동양자수 기법, 크로세 기법</p>	<p>모티브인 부전나비의 날개 아랫면은 은회색 바탕이며, 검은 점무늬가 여러개 나있는데, 앞날개의 검은 점은 원형에 가깝게 되어있고, 바깥쪽으로 검은 점무늬가 발달한다는 날개 문양의 특징을 질감 효과로 나타내 보았으며, 질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동양자수 기법을 사용하였다. 자수를 놓을 바탕소재는 [작품 1], [작품 2]에서 사용했던 펠트 누비 기법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날개 문양 중 점무늬가 발달한다는 특성을 살려 매듭수를 이용하였으며, 시맥의 선은 굵은실을 가는 실로 징거주는 징검수로 나타내었다. 또한, 자유로운 선을 표현하는 자수기법을 응용하여 나비문양을 질감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기본 자켓에 허리 선부터 밑단까지 부풀리면서 나비 날개의 형태를 응용하여 나타냈으며, 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강조가 가능하였다. 삼각 쇼울도 날개의 위, 아래를 하나로 혼합하여 삼각형의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나비 날개의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변형하였다. 가장자리 처리로는 담담사로 크로세 기법을 이용하였다.</p>	
<p>3</p> <p>Gonepteryx rhamni 멧노랑나비 (흰나비과)</p>	<p>원피스 드레스</p>	<p>오간자, 담담사, 투명사, 비즈</p>	<p>Ivory, Yellow</p>	<p>누비기법, 크로세 기법</p>	<p>모티브인 멧노랑나비의 날개는 얇아서 비치는 것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다. 반투명 소재인 오간자를 사용하여 누비 속 재료인 담담사가 비치게 하고 누벼줌으로써, 3겹의 직물이 투시되어 3차원적인 간 효과로 새로운 소재 표현을 하였다. 누비 선은 나비 날개의 시맥에 의해 나타나는 시실 중 중실 이라는 것의 형태를 반복하였으며, 점차 날개의 외형적 형태로 변형되어 나가는 선으로 조형화 하였다. 또한 나비 날개의 여러 개의 반복으로 울퉁감과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색상은 Ivory, Yellow의 유사색의 조화로 귀여운 느낌을 나타내었다. 가슴 위 부분부터 소매부분까지는 투명사에 은색 비즈를 끼워 넣어 크로세 기법을 사용하였다.</p>	
<p>4</p> <p>Agris sardanaparus sardanaparus (네발나비과)</p>	<p>원피스 드레스</p>	<p>오간자, 타조털, 담담사</p>	<p>Brown, Orange, Sky Blue</p>	<p>누비 기법, 크로세 기법</p>	<p>모티브의 색상이 매우 화려한데, 화려한 색상을 강조하기 위해 Orange와 Sky blue의 보색대비 조화를 응용해 보았다. 비치는 천과 천사이에 염색한 타조털을 잘라넣어 누비는 기법으로 결감의 천의 색상과 누비속 타조털의 색상을 보색으로 두어 색채가 혼합되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 보았으며, 시맥의 선을 따라 나타나는 맥상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단위형태로 만들어서 누벼줌으로써 나타나는 울퉁적인 선을 반복하여 표현하였다. 시맥의 선을 강조하기 위해 Dark Brown의 담담사를 이용하여 크로세 기법으로 연결한 작품이다.</p>	

한 전통의 계승과 그것의 독창적 개발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현대 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은 인간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수공예 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복식에서도 수공예 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누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역사와 종류를 살펴보면서 누비의 전통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직물의 표면질감을 높임으로 고부가가치의 실용적인 현대 의상 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누비를 복식디자인으로 응용하기 위해 나비의 형태를 조형원리에 의한 확대, 반복, 분해, 단순화와 색채의 재구성으로 복식디자인에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누비의 개념이 원래는 보온성과 내구력을 가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실용적 목적에 장식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누비의 가치가 복식디자인에 뚜렷이 증명되어 고급스러운 수공예적 현대 디자인의 복식 소재의 표현으로 많은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통 누비는 직물이 가진 평면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감과 3차원적인 공간처리로서 복식의 입체적 표현 질감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을 응용하여 반투명 소재인 오간자를 안감과 겹감으로 하고 담담사를 넣어 누빔으로써 3점의 직물이 투시되는 공간감에 의한 비치는 날개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셋째, 나비의 날개의 화려한 색채는 오간자와 펠트를 염색함으로써 표현하였으며, 펠트의 다양한 색상으로 보색대비의 조화, 유사색의 조화 및 명도 대비를 나타냄과 동시에 펠트 혼합에 의한 풍부한 색채 그라데이션 효과가 가능하였다.

넷째, 나비 날개의 형태와 문양을 응용하여 조형적 형태와 선으로 표현하였는데, 시맥에 의해 구분되는 단위 형태들의 변형, 반복, 확대 등을 통해 누비는 선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뒷날개의 형태적 특성을 의상의 구성 선에 도입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모티브의 형태적 특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다섯째, 나비 날개의 재질감의 표현에 있어서 펠트, 오간자, 담담사, 타조털을 혼합하여 누빔으로써, 린본의 포근한 재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날

개 끝 부분의 털은 담담사를 사용하여 크로세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사틴 실크에 비딩하는 기법은 나비의 매끄럽고 화려한 이미지 표현으로 적합하였다.

본 연구는 나비의 재질감의 표현과 누비의 접목으로 현대 복식 디자인의 소재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누비가 가진 특성들이 현대에 와서 소재 표현 기법으로 다양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비 기법의 응용을 통한 다양한 표현기법이 사용됨으로써 현대 복식디자인의 소재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비의 날개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문양적 요소와 색채에 대한 현대 복식 디자인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술 의상 분야에서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역으로의 확대와 소재의 고급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금기숙, 「조선 복식 미술」, 서울 : 열화당, 1994.
- 김동욱, 「한국 복식사 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3.
- 김창억, 「포름」, 서울 : 홍보문화사, 1982.
-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 미진사.
- 남상호, 「한국의 나비」, 서울 : 대원사, 1999.
- 데이비드 A. Laue, 「조형의 원리」, 이대일(역), 서울 : 도서출판 예경, 1996.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Vol 6, 서울 : 동아출판사, 1982.
- 마를린 혼, 루이스 구렐, 「의복 : 제 2의 피부」, 이화연외(역),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94.
- Maitland Graves, 「디자인과 색채」, 배만실(역), 서울 : 이대출판부, 1965.
- 박성실, 누비소고, 「복식」, 14호, 서울 : 한국복식학회, 1990.
- 박영숙, 「조선조 말기 왕조 복식」, 서울 :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 板倉壽郎, 「복식미학」, 이향숙(역), 서울 : 경춘사, 1989.
- 석주선 기념 민속 박물관, 「한국복식」, 제 8호, 서울 : 단국대 출판부, 1990.
- 석주선, 「衣」, 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 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 서울 : 이대출판부, 1975.
-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서울 : 미진사, 1981.
- 조효순, 「복식」, 서울 : 대원사, 1989.
- 주홍재, 김성수, 손정달 공저, 「원색도감 한국의 나비」,

- 서울 : 교학사, 1997.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의생활 편. 서울 :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ol 5.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복식 2천년」,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1995.
  - 한석우, 「입체조형」, 서울 : 미진사, 1951.
  - 허동화, 「The Wonder of Korean Embroidery」,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1988.
  - 허동화, 「우리규방문화」, 서울 : 현암사, 1997.
  - Carleton L. Safford and Robert Bishop, American Quilt and Cover Lets. New York : Bananza Books.
  - Carter Houk, The Quilt Encyclopedia Illustrated. Harry N.Reams, Inc., 1991.
  - Dale, J. S.,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Publishers Inc., 1986.
  - Idea Fabrics Decoration, Idea Books.
  - Jonathan Holstein, The Pieced Quilt. New York: Galanad Book Little, Brown Company, 1973.
  -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Rizzoli.
  - Setsubo Segawa, Quilt ArtⅢ. 光村推右書院, 1989.
  - The Quilt Digest, The Quilt Digest Press, 1985.
  - 中原和郎, 黒尺良産, Selected Butterflies of The world Illustrated in Colours. Tokyo : Hokuryu-kan, 昭和 33年.
  - 김윤주, "전통누비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원종신, "소재변화에 따른 저고리의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숙연, "곤충의 아르누보적 표현특성을 통한 추상 도자 조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주현, "곤충의 이미지를 통한 도자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조경희, "현대 누비 제작품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주이향, "나비의 율동적 이미지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복식」, Vol 23. 서울 : 이대출판부, 1995.
  - 패션디자이너.
  - 홍익의상전 1999.
  - Fashion News, Vol 40.
  - Fashion News, Vol 46.
  - Fashion Review.
  - Gap Press, Vol 19.
  - Haute Couture Collection.
  - Italia Vogue.
  - Kawa 1996.
  - Millenium Fashion Art 1999.
  - 17th ICAL Consium Exhibition.
- 1) 板倉壽郎, 복식미학, 이현숙(역) (서울:경춘사, 1989), pp.5-6.
  - 2)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아세아문화사, 1973), p.356.
  - 3) Jonathan Holstein, The Pieced Quilt (New York : Galahad Book Little, Brown Company, 1973), p.10.
  - 4)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큰사전 (서울:삼성출판사).
  - 5) 박성실, "누비소고", 복식, (한국복식학회, 1990) 제 14호, p.42.
  - 6) Cutcheon Beth, The Perfect Patchwork Primer (New York: Penguin books, 1973), p.24.
  - 7) 동아세계대백과사전, Vol. 6, (서울:동아출판사, 1982), p.626.
  - 8) Armour (Encyclopedia Britannica), Vol. 2, p.28.
  - 9) Averil Colby, Quilting (New York: Chales Scribner's Sons, 1971), pp.5-6.
  - 10)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p.44.
  - 11) 박성실, "누비소고", 복식, (한국복식학회, 1990) 제 14호, p.42.
  -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ol. 5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04.
  - 13)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p.203.
  - 14) 김창억, 포름, 9월호(서울:홍보문화사출판부, 1982), p.44.
  - 15) 금기숙, 조선복식미술(서울:열화당, 1994), p.114.
  - 16)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p.517.
  -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ol. 5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04.
  - 18) 동아세계대백과사전, Vol. 6, (서울:동아출판사, 1982), p.626.
  - 19) 동아세계대백과사전, Vol. 6, (서울:동아출판사, 1982), p.626.
  - 20) 김창억, 포름, 9월호(서울:홍보문화사출판부, 1982), p.46.
  - 21)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의생활편(서울: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 22) 허동화, 우리규방문화(서울:현암사, 1998), pp.323-324.
  - 23) 염정혜, 한국신세대복식양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1, p.79.
  - 24) 데이비드A.라우어, 조형의 원리, 이대일(역), (서울:예경, 1996), p.10.
  - 25) 한석우, 입체조형, p.17.
  - 26) 정시화, 현대디자인연구 (서울:미진사, 1981), p.27.

- 27) 김춘일, 박남희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서울:미진사), p.36.
- 28) 김춘일, 박남희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서울:미진사), p.80.
- 29) R.G.폴링우드, 예술의원리, 문정복(역)(서울:형성출판사, 1980), p.219.
- 30)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사고, 김정오(역)(서울:이대출판부, 1982), p.38.
- 31) 조규현, 김정제, 조형론(서울:지문당), pp.74-76.
- 32) 데이비드 A.라우어, 조형의 원리, 이대일(역), (서울:예경, 1996), p.150.
- 33) Maitland Graves, 디자인과 색채, 배만실(역) (서울:이대출판부, 1965), pp.123-124.
- 34) 미승우, 세계의 나비(서울:세계의 나비전시회 기념출판), p.6.
- 35) 신유환, 원색한국곤충도감, 한국곤충연구소(편) (서울:아카데미서적, 1989).
- 36) 주홍재, 김성수, 손정달, 원색도감한국의 나비(서울:교학사, 1997), pp.16-17.